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24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1-24
2021 년 01 월 2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218663408](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218663408)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 년 01 월 24 일

차례

1. [사실상계엄령상황인것아닌가?]	3
2. [버블보블 2021]	4
3. [그러니까법이유권자의의견을어쩐다고요?]	4

1. [사실상계엄령상황인것아닌가?]

2020 년작년부터지금까지온세계가코로나 19 로인해너무나달라진생활상을보내고있다. 사실이렇게시작하는글조차이제는피로감이누적되어읽고싶은마음이쑥가시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이런비상상황에서, 아니, 오히려이런비상상황이기에국가는사람들을통제하는것에더자유롭다는것이사실로드러나는것같다.

한국경제는지난한해수사기관의압수수색횟수가 28 만건을넘어서상최대를기록했다고밝혔다. 코로나 19 로인해대면접촉을최소화하기위해재판일정조차한동안차질을겪어야했다는사실을생각하면의외의결과라고할수있다. 정부는모든사회적관심이코로나 19 로쏟린틈을타자신들이원하는바를쉽게행할수있는수단을사용하기를전혀저지하지않은것이다. 그렇게방역에서활을걸고계시니이과정에서철저한방역지침이지켜졌는지확인해보고싶은호기심이일지만그것은우선체쳐두기로하자.

이에그치지않고정부는방역지침인'5 인이상집합금지' 조치를어긴사람들을신고하면포상금을제공하는조치를취하고있다. 이로인해 이른바' 코파라치' 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일평균 1,060 건의신고가이루어지고있는꼴인데, 정부는여기에한술더떠서' 우수신고자 100 명에게는온누리상품권 10 만원, 최우수신고자에게는 50 만원을지급' 하겠다는방침이다. 이렇게사람들이서로를의심하게하고신고하게만드는전략이공안정국과도대체무엇이다른지묻지않을수없다.

이미코로나 19 로인해모두가지쳐있다. 정부역시감염확산을방지하기위해고심하고있다는것을안다. 하지만그렇다고하여서로가서로를감시하게하여서로의자유를억압하는최악의방식을사용하는곳이인권지수가최악인북조선인민공화국이아닌대한민국이라는데에통탄을금할길이없다. 대한민국정부는사람들이서로를미워하고감시하고경계하게만들어이미지친사람들의마음을더욱삭막하게만들고싶은것인가?

이계엄령에맞먹는국가권력의폭주를멈추어야한다. 우리는우리 스스로이위기를잘극복하고있고, 우리스스로의안전을위해서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이틈을타사람들을더욱옹죄는행정방식을사용한다면머지않아사람들은이에대한불만을터뜨리고말것이다. 우리는그것을진심으로바라마지않고있는데정부의의견은어떠한가?

” 코로나 19 확산세에도지난해압수수색증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 코로나파파라치신고급증...정부” 우수신고자 10 만원드려요” :

<https://news.imaail.com/Society/2020123122064086293>

2. [버블보블 2021]

코로나 19 사태속에서전세계의공장과물류는멈춰서있다. 초기에는과거대공황수준의경제불황이올것이라는우려도켰으며실제로노동자와민중은여전한고용불안과악화된노동조건속에서고통받고있다. 하지만이와반대로증권시장은흡사축제의분위기다. 지난해 1400 선에불과했던코스피는올해들어 3000 선을웃돌면서 2 배까지뛰어올랐고이달들어서는종가가코스피사상최초로 3100 선을넘어서기까지했다.

백신이개발되고이제막접종이시작됐음에도불구하고현재의실물경제가코로나사태이전의생산과소비수준으로회복되지못했음은누가봐도분명하다. 심지어백신은아직한국에는접종시작은커녕도달하지도못한상태이다. 이런불안정한실물경제의와중에도자본은정부가코로나를명목으로배부른자금은독점하고노동유연화는적극이용하여노동자들로부터추가적으로착취해낸이윤을투기에쏟아부으며언젠가거품을부풀려가고있다. 자본주의의특징중하나인실물경제와금융시장의괴리가또다시극대화된것이다. 이런괴리속에서의금융호황은결코좋은결말을맞지못할것이다.

오늘날의주식시장이란투기시장에불과하다. 자본가들은생산부문에서의이윤, 특히노동자들로부터착취해낸이윤을금융시장에투기해가며자산가치를부풀림으로서추가적인이윤과착취를도모하고있다. 이런거품호황속의과실은결코노동자들에게돌아오지않지만거품이꺼졌을때자본과정부는언제나그랬듯이그고통만큼은노동계급에게넘기려고들었다.

노동계급은주식시장이자신을착취하는또다른자본의사이클임을인지해야하며이런해악적도박으로의참여를단호히거부하고그총본산인자본주의체제그자체에맞서투쟁해야한다.

” 코스피, 2.61% 급반등...3,100 선근접”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

3. [그러니까법이유권자의의견을어쩐다고요?]

필자는대충 10 년정도전부터투표를거부해왔다. 그리고이이야기를할때마다들어야만했던이야기는, 우리가우리를대변하여법을만들고집행하는사람을직접 뽑지않으면, 그것은민주주의를위협하는행동이라는것이다. 뭐, 실제로 (대의) 민주주의를조금이나마위협하고싶어투표를거부한것이맞고, 높으신양반들이인민의의견에귀를기울이는척이라

도하게하려면, 특정정당에표를던지는것이아니라투표율을한자리수로낮추는것이라고생각하고는있지만, 일단체쳐두자. 그분들이말한대로투표를열심히했다고해보자. 그결과는다음과같다.

고용노동부는주 12 시간이상의연장근무를금지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의유예기간이끝나는올해부터, 해당법률의준수여부에대한특별근로감독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 300 인이상사업장에한정해서.

주최대노동시간의한도를정한법이어떻게만들어진것인가. 문재인씨가대선에출마하면서내건공약이었고, 그렇게그는당선되었다. 즉각적인노동시간제한을요구하는목소리가그토록많았음에도, 문재인씨와집권당은‘정치적타협’을선택했고, 2020 년 12 월까지유예기간을둔노동시간제한과유연근무제의확대시행을들이미었다. 유권자들은‘정치적타협’이필요없을만큼표를몰아주었고, 문재인씨의당은의회내압도적다수당이되었다. 그러자고용노동부는 300 인미만사업장에대해서는감독을하지않겠다고한다.

산업혁명이후지금까지, 법정노동시간한도는지속적으로줄어들어왔다. 하지만그것은입법가들의자비와, 정치꾼들의합의와, 그에의존하는누군가의청원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다. 이번주 52 시간제도입시도에서보이는총극과같이, 지난한합의와타협의과정은높으신분들의야합앞에너무순쉽게무릎꿇는다. 그야합의결과물마저도관료집단의“단속하지않겠다”는결정에유효성을상실한다. 법은, 국회의원들을인민이직접선출하건말건, 결국그들과관료들의야합의결과물에지나지않는다.

다시, 노동시간단축의역사를이야기해보자. 노동대중은“이대로가면죽는다”는절박한필요로꾸준히투쟁했다. 누군가는기계를때려부셨고, 누군가는총파업을조직하였고, 누군가는현장에서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물론그러다가“이러지말고의회에진출하자”는모리배들에게넘어가기도했고, 자본과국가의폭력앞에피흘리며죽어가기도했지만, 그렇게조금씩, 노동대중은직접세상을바꿔왔다.

아직도사회적합의를이야기하거나, 노동자계급정당의의회진출을 통한제도적개선을이야기하는분들과이기를함께읽고싶다. 우리가통제하지도못하고, 지배계급에게끌려다닐수밖에없는부르주아정치외장이아닌, 우리가장악할수있는산업과생산의장에서, 우리의현장투쟁으로세상을바꿔내어야하지않겠냐고말이다.

” 노동부” 주 52 시간근로감독, 300 인이상사업장위주로” :

[https:// n.news.naver.com/ mnews/ article/ 001/0012158846?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58846?sid=102)